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on Their Friendships and School Adjustment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박사과정 노 현 미*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 수 최 외 선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박 인 전**

Dept. of Art Therapy, Yeungnam Univ.

Doctoral Course : Roh, Hyun-Mee

Dept.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

Professor : Choi, Wae-Su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

Professor : Park, In-Jeon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on their friendships and their adjustment to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this study was focused to determine whether children's friendships played a role as a mediator among the other each variables. The subjects were 212 children in the 5th grade at from 3 elementary schools in located at U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ver. 14.0) program and LISREL (ver. 8.30) program. The main findings of study were, first, tha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friendships, and school adjustment, and second, it was found that children's self-regulation influenced on their friendship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Specially, children's friendships played a role in mediating their self-regulation and their school 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친구관계(friendship),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발달과정 중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이 성장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어감에 따라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어진다. 오늘날과 같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성인 및 양육자의 감독이나 지도를 받는 경험이 부족하고,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허용으로 아동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질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대인관계, 즉 성인 및 친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주 저 자 : 노현미 (E-mail : rhmee@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인전 (E-mail : eqpark@yumail.ac.kr)

아동의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은 자기통제나 자기규제 등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함으로써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허정경, 2003).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하며(Kendall & Wilcox, 1979; Mischel & Mischel, 1983), 자기조절의 중요요인은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이동하면서 발달한다(Kopp, 1982). 다시 말해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보다 심리적으로 내면화된 상태이며, 외부보다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학업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이정란, 2003).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외부의 감독이나 감시 없이도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주시하고 조화롭게 맞추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므로, 궁극적으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화를 예견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자기조절능력이 결여되면 아동은 반항성장애를 보이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며(허정경, 2003), 이후의 범죄행동이나 학교에서의 조기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Henry et al., 1996). 반면, 10년간의 종단 연구결과(Mischel et al., 1988), 아동이 학령 전부터 자기 통제를 잘 할 경우 그 후에도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다른 다양한 발달 영역, 특히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기조절능력이 친구와의 좋은 관계나 학교에서 보다 잘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과 관련하여 먼저 아동의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은 친한 친구를 가지면서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일시적인 놀이친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친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Bukowski와 Hoza(1989)는 친구관계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친구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둘째, 아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해주며, 셋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Sullivan은 아동기에 여러 명의 동성의 친구와 우정을 형성하는 능력과 경험이 훗날의 대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강문희 등, 2006, 재인용). 또한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아동기 이후의 대인관계 틀을 형성해 주고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artup & Sancilio, 1986)나, 아동기에 또래에 수용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면 이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Bagwell et al.,

1998) 역시 아동의 친구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은 경우 부모로부터 벗어나 친구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가정에서 제공되는 지지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며(이주리·유안진, 1995), 또래애착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된다(황창순, 2006). 이렇게 친한 친구는 때때로 갈등과 경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의견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발달시켜 준다. 또한 사회적 성장과 지적발달을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김지혜, 2004). 이는 아동기의 친구가 아동의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에 필수적이며,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친구관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에게 중요한 친구관계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지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들은 또래관계에서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윤진주 등, 2005), 이와 반대로 자기조절력이 높은 유아들은 친사회성과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문연심, 2001)가 있다. 뿐만 아니라, Smith와 Walden(2001)은 아동의 정서조절을 자기조절능력의 일부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러한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한유진, 2006)에 의하면,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에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및 친구관계와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과도 관련성이 적지 않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요구·갈등·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김용래, 1993),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생활환경에 아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대해 적절하게 적응하며 자기 자신도 만족해하는 경우(김지혜, 2004)라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는 주된 사회적 환경이므로, 학교에서의 성공적 적응은 앞으로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의 학교적응이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적지 않음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있는 아동이 자기통제능력이 있으며, 초기의 또래거부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지각의 부족과 학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거부 및 수행 수준의 저하를 가지고 오게 한다는 연구(Mischel, 1981)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Tangney 등(2008)은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한 아동일수록 적응력이 뛰어나고 대인간의 문제가 적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다양한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문제 있는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조절이라는 보고(Dishion & Connell, 2006)도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에 알맞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사회생활의 장이 되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요구되지만, 특히 아동의 또래 및 친구관계는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또래나 친구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Berndt et al., 1999; Ladd et al., 1996)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함에 있어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친밀한 친구관계는 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문제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Newcomb & Bagwell, 1996; Parker & Asher, 1993)나,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해 아동의 학업참여를 조장하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 또래로부터의 지지를 지적한 연구(Morrison et al., 2000)를 볼 때, 아동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함께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행동상의 적응은 친구관계의 질에 기여를 하며, 친구 간에는 행동상의 적응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Dunn & Cutting, 2001), 친구관계는 아동의 다양한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친구관계는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학교에서 적응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김지혜, 2004; 이은혜 등, 2001; 임수경 · 이형실, 2007; Gonzales et al., 1996; Kochenderfer & Ladd, 1996)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과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높은 자기조절능력이 부모나 친구 등과의 좋은 대인관계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의 낮은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음(손승아 등, 2006)을 밝히고 있어, 아동이 자기조절을 잘 하면 친구를 포함한 대인관계가 좋고 학교환경 등에서도 더욱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격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성연 · 강지훈, 2005)에서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이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적은 또래 괴롭힘의 경험이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강수령 · 이경님, 2001)고 밝혀져,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그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이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대인관계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친구 및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해 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관련변수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구체적으로 친구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학동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적응이 향후 청소년기를 비롯한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이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정도는 어떠한지, 특히 이 과정에서 아동의 친구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효과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U 광역시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령기 후반인 초등학교 5년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는 이 시기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더불어 친밀한 친구관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아 125명(59%), 여아 87명(41%)이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허정경(2003)의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인지적 요인(11문항), 동기적 요인(8문항), 행동적 요인(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그렇다'가 5점, '그런 편이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계수는 인지 및 동기적 자기조절이 각각 .72이고, 행동적 자기조절이 .61이며, 자기조절능력 전체는 .85이다.

2) 아동의 친구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과 Abound

(1999)의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를 고은혜와 고은주(199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 FQ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고은혜와 고은주(1999)의 척도는 9개 하위영역,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5개 하위영역,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고, 총 설명변량은 65.71%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아주 많이 그렇다'가 4점, '많이 그렇다'가 3점, '조금 그렇다'가 2점, '아주 조금 그렇다'가 1점에 해당된다.

친구관계의 제1요인은 교제/만족감(8문항), 제2요인은 경쟁(4문항), 제3요인은 인정/정서적 안정(5문항), 제4요인은 갈등(4문항), 제5요인은 친밀감(3문항)이다. '교제/만족감'은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것과 그 때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기대하는 것이며, 또한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경쟁'은 학교와 놀이상황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친구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인정/정서적 안정'은 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능,

<표 1> 친구관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공통성
		1	2	3	4	5	
교제/만족감	~와 친구라서 행복하다.	.805	-.004	.176	-.053	.102	.766
	친구에게 만족한다.	.840	.067	.085	-.054	.116	.734
	~가 좋은 친구이다.	.824	-.038	.088	-.029	.021	.689
	친구를 만나면 신난다.	.800	-.005	.184	-.076	.178	.712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다.	.775	-.120	.072	-.090	.016	.628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다.	.700	.005	.153	-.140	.215	.580
	~와 가깝다고 느낀다.	.683	-.032	.285	-.026	.131	.566
	친구와 서로 집에 가서 놀면 좋다.	.665	-.078	.161	-.027	.205	.517
경쟁	친구보다 공부 잘한다고 듣고 싶다.	-.006	.856	-.003	.100	.080	.750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애쓴다.	-.061	.856	.026	.227	.051	.791
	친구보다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081	.808	.004	.169	-.043	.690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022	.799	-.085	.139	-.026	.666
인정/정서적 안정	~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준다.	.152	-.022	.784	-.134	.142	.676
	친구는 나를 인정해 준다.	.276	.009	.774	-.169	.025	.704
	화가 났을 때 친구가 풀어주려 한다.	.336	-.082	.652	-.070	.142	.569
	친구는 나에게 똑똑하다고 말해준다.	.024	.107	.647	-.151	.198	.492
	슬플 때 친구가 위로해 준다.	.209	-.122	.608	.041	.207	.473
갈등	친구와 말다툼을 한다.	-.092	.070	-.131	.833	-.127	.741
	친구와 싸울 때가 있다.	-.084	.224	-.021	.831	.065	.752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	-.031	.142	-.182	.723	-.125	.592
	친구 때문에 화날 때가 있다.	-.160	.356	-.107	.694	.138	.665
친밀감	친구에게 비밀 얘기를 한다.	.149	.126	.252	-.124	.756	.689
	친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있다.	.260	-.035	.291	.056	.739	.703
	기분 나쁜 일을 친구에게 말한다.	.263	-.012	.130	-.014	.734	.625
	고유치	7.165	3.716	2.194	1.561	1.133	
	설명변량	29.855	15.484	9.140	6.504	4.722	
	누적변량	29.855	45.340	54.479	60.983	65.705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갈등'은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고, '친밀감'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24문항에 대한 5개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교제/만족감이 .91, 경쟁이 .87, 인정/정서적 안정이 .80, 갈등이 .82, 친밀감이 .74이다.

3)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용래(1993)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학교환경적응(9문항), 학교교사적응(9문항), 학교수업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8문항), 학교생활적응(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거의 그렇다'가 5점, '그런 편이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 해당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환경적응이 .85, 학교교사적응이 .87, 학교수업적응이 .82, 학교친구적응이 .78, 학교생활적응이 .82이며, 학교적응 전체는 .95이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조사는 U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응답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1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12부의 질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 간에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기조절은 친구관계의 하위요인 중 갈등과 경쟁을 제외한 모든 친구관계 하위요인들, 즉 교제/만족감(.21), 친밀감(.25), 인정/정서적 안정(.4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동기적 자기조절은 친구관계의 하위요인 중 갈등(-.16)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머지 친구관계 요인들, 즉 교제/만족감(.15), 친밀감(.19), 인정/정서적 안정(.25), 그리고 경쟁(.1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행동적 자기조절은 친구관계의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경쟁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교제/만족감(.15), 인정/정서적 안정(.2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갈등(-.2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기조절은 학교적응 하위요인 모두, 즉 학교환경적응(.43), 학교교사적응(.37), 학교수업적응(.55), 학교친구적응(.41), 학교생활적응(.53)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동기적 자기조절은 학교적응 모든 하위요인, 즉 학교환경적응(.40), 학교교사적응(.36), 학교수업적응(.57), 학교친구적응(.43), 학교생활적응(.59)과 유의한 정적 상관

<표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인지적자기조절	1.00												
2. 동기적자기조절	.71***	1.00											
3. 행동적자기조절	.42***	.47***	1.00										
4. 교제/만족감	.21**	.15*	.15*	1.00									
5. 친밀감	.25***	.19**	.09	.44***	1.00								
6. 인정/정서적안정	.40***	.25***	.25***	.49***	.48***	1.00							
7. 갈등	-.10	-.16*	-.25***	-.22**	-.11	-.30***	1.00						
8. 경쟁	.12	.15*	.06	-.08	.04	-.08	.40***	1.00					
9. 학교환경적응	.43***	.40***	.39***	.33***	.19**	.34***	-.17*	.03	1.00				
10. 학교교사적응	.37***	.36***	.34***	.35***	.20**	.30***	-.20**	.14*	.65***	1.00			
11. 학교수업적응	.55***	.57***	.47***	.26***	.11	.36***	-.18**	.09	.63***	.59***	1.00		
12. 학교친구적응	.41***	.43***	.34***	.41***	.31***	.49***	-.30***	.02	.56***	.58***	.58***	1.00	
13. 학교생활적응	.53***	.59***	.55***	.35***	.20**	.35***	-.20**	.11	.65***	.57***	.68***	.54***	1.00

*p<.05, **p<.01, ***p<.001

을 보였다. 그리고 행동적 자기조절은 학교적응 모든 하위요인들, 즉 학교환경적응(.39), 학교교사적응(.34), 학교수업적응(.47), 학교친구적응(.34), 학교생활적응(.5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와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하위요인 중 교제/만족감은 모든 학교적응 하위요인들, 즉 학교환경적응(.33), 학교교사적응(.35), 학교수업적응(.26), 학교친구적응(.41), 학교생활적응(.3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친밀감은 학교수업적응을 제외한 모든 학교적응 하위요인들, 즉 학교환경적응(.19), 학교교사적응(.20), 학교친구적응(.31), 학교생활적응(.2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정/정서적 안정은 모든 학교적응 하위요인들, 즉 학교환경적응(.34), 학교교사적응(.30), 학교수업적응(.36), 학교친구적응(.49), 학교생활적응(.3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갈등은 학교적응 모든 학교적응 하위요인들, 즉 학교환경적응(-.17), 학교교사적응(-.20), 학교수업적응(-.18), 학교친구적응(-.30), 학교생활적응(-.20)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경쟁은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교사적응(.14)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에서는 동기적 자기조절만이 모든 친구관계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인지적 자기조절은 갈등, 경쟁과, 행동적 자기조절은 친밀감, 경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친구관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교제/만족감, 인정/정서적 안정이 모든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갈등이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친밀감은 학교수업 적응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경쟁은 학교교사적응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운 가설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는지를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Chi-square(χ^2), 합치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 GFI), 비표준부합치(Non-Normed Fit Index : NN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 N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 RMSR)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

다. 가설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고정지수값(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을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변인들간의 영향은 t값으로 가설된 경로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아동의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외생변인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21$)이 교제/만족감에 미치는 경로,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25$)이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40$)이 인정/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경로, 행동적 자기조절($\gamma = -.25$)이 갈등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생변인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28$), 행동적 자기조절($\gamma = .24$)이 학교환경적응에 미치는 경로, 행동적 자기조절($\gamma = .30$)이 학교교사적응에 미치는 경로,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26$), 동기적 자기조절($\gamma = .29$), 행동적 자기조절($\gamma = .22$)이 학교수업적응에 미치는 경로, 동기적 자기조절($\gamma = .31$)이 학교친구적응에 미치는 경로, 동기적 자기조절($\gamma = .40$), 행동적 자기조절($\gamma = .33$)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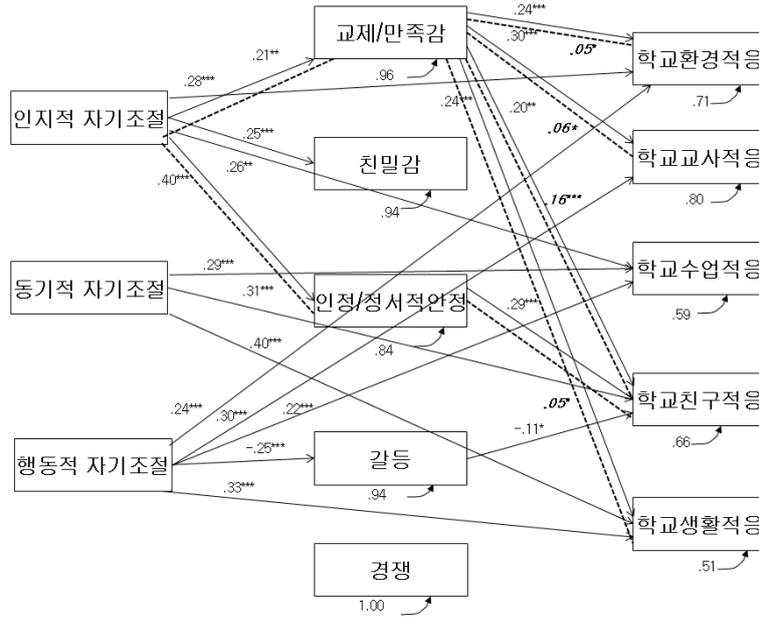
내생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친구관계 중에서 교제/만족감($\beta = .24$)이 학교환경적응에 미치는 경로, 교제/만족감($\beta = .30$)이 학교교사적응에 미치는 경로, 교제/만족감($\beta = .20$), 인정/정서적 안정($\beta = .29$), 갈등($\beta = -.11$)이 학교친구적응에 미치는 경로, 교제/만족감($\beta = .24$)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생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05$)이 교제/만족감을 거쳐 학교환경적응에,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06$)이 교제/만족감을 거쳐 학교교사적응에,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16$)이 교제/만족감과 인정/정서적 안정을 거쳐 학교친구적응에, 인지적 자기조절($\gamma = .05$)이 교제/만족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생변인의 설명되지 않은 변량은 $\Psi(\psi)$ 지수로 나타내며, 이 지수가 클수록 그 변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다른 설명변

<표 3> 가설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χ^2	df	GFI	NFI	NNFI	RMSR
가설모형	399.09	20	.72	.66	-.35	.13
연구모형	457.46	56	.70	.61	.49	.16



<그림 1> 아동의 연구모형 경로도

<표 4> 아동에 대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 t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자기조절능력	인지적 자기조절	.21(3.01**)	.21(3.01**)	교제/만족감	
	인지적 자기조절	.25(3.54***)	.25(3.54***)	친밀감	
	인지적 자기조절	.40(6.18***)	.40(6.18***)	인정/정서적 안정	
	행동적 자기조절	-.25(-3.63***)	-.25(-3.63***)	갈등	
친구관계	교제/만족감	.24(3.88***)	.24(3.88***)	학교환경적응	
	교제/만족감	.30(4.77***)	.30(4.77***)	학교교사적응	
	교제/만족감	.20(3.53***)	.20(3.53***)	학교친구적응	
	인정/정서적 안정	.29(4.90***)	.29(4.90***)	학교친구적응	
	갈등	-.11(-2.02*)	-.11(-2.02*)	학교친구적응	
	교제/만족감	.24(4.65***)	.24(4.65***)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능력	인지적 자기조절	.28(4.11***)	.05(2.38*)	.33(4.79***)	학교환경적응
	행동적 자기조절	.24(3.64***)		.24(3.64***)	학교환경적응
	인지적 자기조절		.06(2.54*)	.06(2.54*)	학교교사적응
	행동적 자기조절	.30(4.70***)		.30(4.70***)	학교교사적응
	인지적 자기조절	.26(3.24***)		.26(3.24***)	학교수업적응
	동기적 자기조절	.29(3.53***)		.29(3.53***)	학교수업적응
	행동적 자기조절	.22(3.58***)		.22(3.58***)	학교수업적응
	인지적 자기조절		.16(4.52***)	.16(4.52***)	학교친구적응
	동기적 자기조절	.31(5.22***)		.31(5.22***)	학교친구적응
	인지적 자기조절		.05(2.53*)	.05(2.53*)	학교생활적응
동기적 자기조절	.40(6.93***)		.40(6.93***)	학교생활적응	
행동적 자기조절	.33(5.75***)		.33(5.75***)	학교생활적응	

*p<.05, **p<.01, ***p<.001

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내생변인의 설명력으로 해석되는데 <그림 1>에서 살펴보면, 교제/만족감의 4%($\psi = .96$)가 1개의 외생변인에 의해, 친밀감의 6%($\psi = .94$)가 1개의 외생변인에 의해, 인정/정서적 안정의 16%($\psi = .84$)가

1개의 외생변인에 의해, 갈등의 6%($\psi = .94$)가 1개의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학교환경적응의 29%($\psi = .71$)가 2개의 외생변인과 1개의 내생변인에 의해, 학교교사적응의 20%($\psi = .80$)가 1개의 외생변인과 1개의 내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며,

학교수업적응의 41%($\psi = .59$)가 3개의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학교친구적응의 34%($\psi = .66$)가 1개의 외생변인과 2개의 내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며, 학교생활적응의 49%($\psi = .51$)가 2개의 외생변인과 1개의 내생변인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아동에 대한 전체 모형의 총효과(TE), 직접효과(DE), 간접효과(IE)를 제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의 외생변인인 자기조절능력 중에서 인지적 자기조절(DE= .21, $t=3.01$)이 교제/만족감에, 인지적 자기조절(DE= .25 $t=3.54$)이 친밀감에, 인지적 자기조절(DE= .40 $t=6.18$)이 인정/정서적 안정에, 행동적 자기조절(DE=-.363 $t=-3.63$)이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내생변인인 아동의 친구관계 중에서 교제/만족감(DE= .24 $t=3.88$)이 학교환경적응에, 교제/만족감(DE= .30 $t=4.77$)이 학교교사적응에, 교제/만족감(DE= .20 $t=3.53$), 인정/정서적 안정(DE= .29 $t=4.90$), 갈등(DE=-.11 $t=-2.02$)이 학교친구적응에 미치는 경로, 교제/만족감(DE= .24 $t=4.65$)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생변인인 자기조절능력 중에서 인지적 자기조절은 학교환경적응에 직접적인 영향(DE= .26, $t=3.91$)과 간접적인 영향(IE= .05, $t=2.38$)을 미쳤고, 행동적 자기조절은 직접적인 영향(DE= .24, $t=3.6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자기조절은 학교교사적응에 간접적인 영향(IE= .06, $t=2.54$)을 미쳤고, 행동적 자기조절은 직접적인 영향(DE= .30, $t=4.7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자기조절(DE= .26, $t=3.24$), 동기적 자기조절(DE= .29, $t=3.53$), 행동적 자기조절(DE= .22, $t=3.58$)은 학교수업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자기조절은 학교친구적응에 간접적인 영향(IE= .16, $t=4.52$)을, 동기적 자기조절은 직접적인 영향(DE= .31, $t=5.2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에 인지적 자기조절은 간접적인 영향(IE= .05, $t=2.53$)을, 동기적 자기조절(DE= .40, $t=6.93$)과 행동적 자기조절(DE= .33, $t=5.75$)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의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 그리고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은 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친구관계의 하위영역 중, 특히 '인정/정서적 안정'과

비교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조절능력 중 특히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중 '인정/정서적 안정'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이 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 등의 영역인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대체로 친구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손승아 등, 2006)와 유사한 것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친구관계도 좋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나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중 '갈등'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일수록 친구와의 의견불일치나 다툼, 혹은 친구의 괴롭힘과 같은 불편한 상황을 보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등도 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Raffaelli(1997)도 친구와 다투지 않을수록 친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친구관계에서도 더 만족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어,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이 친구에게 만족감과 안정을 얻고 갈등은 더 적게 경험한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중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중 '경쟁'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나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조정 등의 자기조절이 잘 되는 아동일수록 경쟁심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신뢰하는 아동이라면 친구관계에서도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선의(善意)의 의미에서 경쟁심도 느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영역인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소속감, 리더쉽과 친구관계를 맺는 능력이 많아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역기능적으로 정서조절을 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연구결과(박성연·강지훈, 2005)와 유사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외부의 감독이나 감시 없이도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주시하고 조화롭게 맞추어 갈 수 있다고 밝힌 연구(허정경, 2003)와도 맥을 같이 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외부환경에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보면, 친구관계의 하위요인 중 특히 '교제/만족감'과 '인정/정서적 안정'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고 그 때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기대하며,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인 '교제/만족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능력인 '인정/정서적 안정'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 적응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인 친구관계 질과 친구관계 만족감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문은정·심희옥, 2001)나, 안정적인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의 지표 중, 학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이은혜 등,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동이 다양한 대인관계 중 친구에게 가장 친밀감을 느낄 뿐 아니라,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친구를 제 일차적인 근원으로 꼽음에 따라(Fruman & Buhrmester, 1985), 아동의 학교적응에 무엇보다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관계 중 '갈등'은 학교적응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아동일수록 학교에서의 적응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적을수록 학교에서도 더욱 적응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관계 중 '갈등'요인은 학교적응 중 특히 학교친구적응과 부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다툼이 있고 친구의 괴롭힘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중 '친구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외생변인으로,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동의 친구관계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 등의 영역인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친구관계가 자기조절능력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고학년 아동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고학년 아동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학년 아동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탐색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향(허정경, 2003)이 있어, 저학년 아동에 비해 친구와 더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학교친구와의 관계라고 밝힌 연구(이영주, 2008)나,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향순, 2006)와 유사하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중 '동기적 자기조절능력' 및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경험과의 연계, 목표조정 등의 영역인 동기적 자기조절능력과 충동성, 스트레스, 또래압력, 감정 등의 영역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이 학교라는 환경에 조화를 잘 이룸에 있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에는 목표조정의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높은 아동의 경우 학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과제를 이해하며,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 내에 어떤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Wentzel, 1989). 이러한 요소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써, 학교와 같은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충동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충동의 통제는 자기조절이나 자기통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요소로, 지시나 명령에 준해 행동을 중지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Kochanska et al., 1996), 외부의 지시나 규준에 따라 아동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은 외부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요구되는 것이다.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중 하나인 충동성 조절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충동적이고 욕구좌절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연구(장은진, 200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정경(2003)은 자기조절 발달 과정 중의 하나인 자기통제는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면화된 성인의 명령에 부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아동의 자기조절이 다양한 학교상황, 특히 교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의 학교적응 중 특히 '학교수업적응'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인 모든 영역의 자기조절능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학교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유발된 개인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자기조절능력의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좋은 수업태도와 수업시간에 자기조절을 하는 등 학교수업적응을 위해서는 기억이나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동기적 측면,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적 측면 등의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자기조절능력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주며(Pintrich & De Groot, 1990),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고 하여(Kendall & Wilcox, 1979),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요소가 아동의 학교수업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기적 행동의 자기조절은 주의집중력과 더불어 아동의 학업성취능력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예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Nelson et al., 1999),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에서의 수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아동의 친구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의 다양한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친구관계의 '교제/만족감'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기억과 지식으로 스스로를 잘 조절하게 되면,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친구에게 애정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영역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에는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의 요소가 있는데, Miller(2000)는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해석할 때 훨씬 더 적은 사회적 단서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단서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인 해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다양한 학교 상황에서 아동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요구됨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매개변인이 친구관계 중 '교제/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단서를 자주 선택할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은 학교친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친구관계 중 '교제/만족감', '인정/정서적 안정'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억이나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는 아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친구관계는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Bigelow, 1977; Hayes, 1978), 연령이 높은 아동들의 친구관계에는 보다 기억이나 지식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개변인이 '교제/만족감'과 '인

정/정서적 안정'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인지적으로 조절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친구와의 활동을 즐겁게 여기고 친구에게 애정을 느끼며, 친구를 통해 격려 받고 자기 가치감의 확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이 친구관계에서의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결과(박성연·강지훈, 2005)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만족스럽고 지지받는 친구관계의 경험을 통해 학교에의 적응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 도시의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전체의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 즉 자기조절능력과 친구관계, 학교적응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형적합도 지수가 높지 않아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 역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 방식이어서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의 경우 부모나 교사의 보고, 혹은 관찰 등과 같이 보다 다각적인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가 자기조절능력이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다도 주로 사회성이나 학교적응과 같은 넓은 범위의 변인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추가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중 보다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측면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것이 학교적응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의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적응력을 높임에 있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의 친구관계 향상 및 학교적응을 위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친구관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규명하고,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중재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신현옥 · 정옥환 · 정정옥(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강수령 ·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 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교육논총**, 27, 161-179.
- 고은혜 · 고은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 김용래(1993). 정의적 특성과 그 선행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9, 5-96.
- 김지혜(2004). **숲 체험을 통한 조직캠프 집단상담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친구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향순(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과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2001).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10, 1-34.
- 문은정 · 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박성연 ·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손승아 · 안경숙 · 김승경(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3, 127-148.
- 윤진주 · 강신영 · 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 이영주(2008).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 김정윤 ·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리 · 유안진(1995).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 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3), 127-147.
- 임수경 · 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은진(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을 위한 학교기반 다양성 적 개입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43, 201-225.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t, T. J., Hawkins, J. A., & Jiao, Z.(1999). Influence of friends and friendship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1), 13-41.
- Bigelow, B. J.(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246-253.
- Bukowski, W.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15-45). N.Y.: Wiley.
- Dishion, T. J. & Connell, A.(2006). Adolescents' resilience as a self-regulatory process: Promising themes for linking intervention with developmental scienc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094, 125-138.
- Dunn, J. & Cutting, A. L.(2001). Understanding other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interactions in you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2), 201-219.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onzales, N. A., Cauce, A. M., Friedman, R. J., & Mason, C. A.(1996). Family, peer,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One-year prospe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3), 365-387.
- Hartup, W. W. & Sancilio, M. F.(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chopler & G. B. Mesibor(Eds.), *Social behavior in autism*(pp. 61-79). N.Y.: Plenum.
- Hayes, D. S.(1978). Cognitive base for liking and disliking among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4, 549-556.
- Henry, B., Caspi, A., Moffitt, T. E., Harrington, H., & Silva, P. A.(1996). Staying in school protects boys with poor self-regulation in childhood from later crim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 1049-1073.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ochanska, G., Murray, K., Jacques, T. Y., Koenig, A. L, & Vandegeest, K. A.(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2), 490-507.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Kopp, C. B.(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iller, D. C.(2000).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academic and social contexts: A self-regulation perspectiv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Mischel, W.(1981). *Introduction to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 Mischel, W. & Mischel, H. N.(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3), 603-619.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Morrison, G. M., Storino, M. H., & Anthony, S.(2000). Teacher and student perspectives on academic engagement related to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A*.
- Nelson, B., Martin, R. P., Hodge, S., Havill, V., & Kamphaus, R.(1999). Modeling the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from preschool tempera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4), 687-700.
- Newcomb, A. F. & Bagwell, C. L.(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289-3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ntrich, P. R. & De Groot, E. V.(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affaelli, M.(1997). Young adolescents' conflicts with sibling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539-558.
- Smith, M. & Walden, T.(2001). An exploration of African American preschool-aged children's behavioral regulation in emotionally arousing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31(1), 13-45.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2008).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Wentzel, K. R.(1989). Adolescent classroom goal, standard for perform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31-142.

- 접수일 : 2009년 01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17일